

## 정부 · 기관소식

### 농림수산물부

소규모 농식품 업체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된다  
농식품부, '12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 발표

농림수산물부(장관 : 서규용)는 '12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농림수산물부는 지난 2년간 2,30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농식품 펀드가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펀드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금년에는 한미 FTA 발효 등 어려운 농정여건을 감안하여 “농식품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펀드결성”,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농식품 경영체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펀드결성)금년에는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540억원을 출자하여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결성하여 5대 중점과제를 지원한다. 농식품 펀드 도입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농식품 경영체 전용 투자펀드(2개, 200억원)를 조성한다.

- 펀드결성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비율(50%→70%), 기준수익율(7%→3%) 등에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금년 5대 중점과제 지원을 위한 식품펀드(2개, 320억원)·수산물펀드(1개, 160억원)뿐만 아니라 농림축산펀드(2개, 320억원)도 결성된다.

- 모태펀드 출자비율(50%) 및 기준수익율(7%)은 전년 수준과 같다.

\* 5대 중점과제 :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물가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정예인력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수출확대, 양식산업 육성

(투자촉진) 금년 말까지 3,3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1년내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수익율을 하향하고(7%→0%), 투자의무비율 조기 달성 펀드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수수료(2.5%)를 연초 조기 일괄지급(연 4회→연1회)한다.

\* 의무투자비율: 1년(20%), 2년 40%, 3년 60%, 4년 80%

또한, 1년내 투자의무비율(20%)을 신설하여 펀드 운용사의 경영체 발굴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아울러, 경영체 Value-Up 및 전주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체와 투자펀드가 WIN-WIN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주요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체의 Value-up을 위한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Incubating)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 인큐베이팅 사업 : 우수 인증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영체를 발굴하여 사업전략 수립, 교육·컨설팅, 회사설립, 투자연계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전주기관리팀”을 신설하

는 등 경영체 발굴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공격적 펀드운용을 유도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투자펀드가 선진 농어업을 견인할 새로운 정책금융임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금융방식인 투융자를 보완·대체하는 제3섹터형 정책금융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펀드 조성 및 투자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야생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집중 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2년 AI 상시예찰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야생조류 2,000수에 대한 AI 감염실태를 집중 조사하기로 하였다.

본 조사는 야생조류를 포획하여 AI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주 포획대상은 오리·기러기와 같은 겨울철새와 백로, 왜가리 등 여름철새이며 포획시기는 겨울과 봄에 집중되어 있다.

검사를 위하여 포획된 조류는 현장에서 시료채취 후 즉시 방사하여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포획전문 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본 예찰사업은 국내가금사육 농가를 위협하는 AI 바이러스의 유입 및 전파원인 규명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으로 '10/'11년 발생한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역학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10.11.29 전북 익산 만경강에서 포획된 청둥오리에서 HPAI 바이러스가 (국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최초로)검출되었고 한 달 후 12.29일 해당 지역의 가금농가에서 HPAI가 발생하는 등 국내 AI 발생과 야생조류간에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본 사업은 '07년 이후 매년 추진해온 것으로 '07년(500수 포획, 항원·항체 6건 검출)에 비해 '11년(1,300수 포획, 항원·항체 52건 검출)에는 검출율이 크게 증가하여 '12년에는 포획물량을 2,000수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야생조류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및 종계장 예찰 등을 통하여 AI 국내 유입여부의 조기검색 및 위험요인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 박현출 농촌진흥청장, 축산 연구현장 방문 종자국산화, 수출 지원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노력 당부

농촌진흥청 박현출 청장은 충남 성환시 소재 국립 축산과학원의 연구현장을 방문해 연구원을 격려하고 축산현안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토종닭을 모본으로 한 우리맛닭 종자 개발과 수출활성화 연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계의 동향을 잘 파악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 | 정부 및 기관소식 |

과제를 기획하고 현장과 정책에서 요구하는 연구에 집중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가금과에서는 FTA에 대응한 가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닭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토종닭과 오리 등 종자개발, 항생제 사용금지 이후 대두되는 문제 해결방안, 기후변화 대응 등의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축산이 수출산업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질병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우 개량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암·수소 동시 개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가축개량평가과에서는 젓소는 인터불(국제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면서 국내산 젓소 능력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암소개량을 위해 가축개량기관, 육종농가 등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의 개발과 종자보급 성과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며, 특히 유통조사의 품질향상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지사료과에서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가 22%를 점유할 정도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극조생종인 그린팜의 확대보급과 혼파재배,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일리지 품질분석기 개발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축산물HACCP기준원, MOU체결기관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 원장 석희진)은 2월 23~24일 이틀에 걸쳐 기준원과 MOU

를 체결한 17개 기관의 담당 교수·연구관·팀장 등 30여 명과 함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대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기준원의 2011년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축산물 HACCP 발전 방안·축산물HACCP 기술보급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수행·MOU체결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분임 조별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됐다.

또한 분임조별 토의 결과 발표와 석희진 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통하여 축산물HACCP 강화방안 및 기준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각 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대다수 참석자들은 “축산물HACCP 및 기준원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축산물HACCP의 R&D분야에 대한 기준원의 적극적인 사업 강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축산물HACCP의 전반적인 운용수준 향상과 우수 HACCP적용 모델 제

시를 위해 “축산물HACCP 운용 우수작업장 선발 사업” 확대 시행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석희진 원장은 “FTA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위해 HACCP적용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가 필수요소”라고 강조하고 농장에서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HACCP을 적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이 MOU체결기관과 기준원이 축산물HACCP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함께 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방역본부, '11년도 경영실적 평가 및 '12년도 경영전략회의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2월 20일 (월) 11:00 경기 안양소재 본부 대회의실에서 도본부장·사무국장 등 소속직

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년도 경영실적 평가 및 '12년도 경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상호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는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현장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임·직원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줌으로써 가축전염병 조기근절과 확산방지에 기여했으며, 또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하여 축사환경개선 및 도축검사결과 농

가제공서비스 등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및 안전축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방역과 위생을 직접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말에 이어 '1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12년도 경영전략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함으로써 임·직원들간 공감대 형성과 목표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방역본부는 비전인 ‘가축위생방역 일류기관’ 달성을 위하여 내·외부 경영환경을 분석하여 ‘예방위주 사업활동’, ‘고객감동 실현’, ‘성장동력 발굴’, ‘경영선진화’를 4대 경영전략으로 삼고 분야별 전략과제들을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위생·검역사업 등 수입받은 사업은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아울러 도계·도압장 검사업무 수입 기반 확충, 정보화 역량 강화, 축산농가 가축질병 관리수준 등급 부여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 농협, 사업구조개편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새 역사’ 쓰겠다

농협중앙회 윤종일 전무이사는 사업구조개편 출범을 맞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사업구조개편 추진 배경 및 사업부문별 비전을 발표하였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산물유통)의 사업조직을 각각 별도의 법

인으로 분리하는 일로서 그 필요성이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 왔다.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농업인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농협중앙회가 부응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업 조직의 분리 독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농업계 전반이 공유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계 내부의 세부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농협 개혁은 번번히 좌절되어 왔었다. 그러던 것이 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작년 3월,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개정 농협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1년여의 구조개편 실무 작업을 거쳐 오는 3월2일, 새로운 농협이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된다.

윤종일 전무이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협중앙회는 지난 50년 동안 농업인과 동고동락하며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면서도 “농산물 시장개방과 소비자 유통업체의 대형화 등으로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농업·농촌의 여건이 악화되었고, 농협이 앞장서서 농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며 사업구조개편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사업구조개편으로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신설되고 중앙회는 두 지주회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지주회사는 기존 경제관련 자회사 13개와 향후 5년간 신설될 자회사들을 관리하면서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5.95조원의 막대한 자본금을 투입하고 농축산물의 유통 계열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을 세운 만큼 우리나라 농

산물 유통의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윤종일 전무이사는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제 값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판매농협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지주회사는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이자 순수 국내자본의 토종 금융그룹으로 출범하게 된다. 금융지주 산하에는 신설되는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이 기존 금융관련 자회사와 함께 편재되어 금융자회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은행, 보험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금융 영역 확대를 통해 농협 고유의 사업 또한 특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두 지주회사를 관리하면서 회원조합 상호금융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과 농업인 지원 사업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지주회사 등 자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명칭사용료를 통해 농업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상호금융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호금융대표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중앙회는 그 동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되어오던 공통관리조직을 슬림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종일 전무이사는 “이번 사업구조개편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오랜 고민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앞장섬은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을 모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협동조합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